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 : 會 長 沈 宜 洛
編輯人 : 文化理事 沈 載 緖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印刷 : 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장학(奬學)버스에 손을 흔드세요!

大宗會 會長 沈宜洛

존경하는 전국 22만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버스는 정규노선이 없기 때문에 손을 흔드는 사람(학생)만 찾아갑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지난 9월14일 전국 지역종회와 일부 파종회의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의제를 중심으로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1. 대종회 장학사업에 우리문중 각 지파 및 지역종회와 22만 종인이 적극지지 찬성하며 참여 협조하기로 한다.

2. 장학금 수여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또는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3. 장학금 수여 일시 장소를 지역 종회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 3개항 중 제2항은 앞으로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할 사항이나 제3항은 그 이유가 대종회총회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자는 학교를 결석하게 되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족동반 왕복여비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재고사유가 된다고 사료되어 2013년부터 장학금 지급시기와 장소를 지역 종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담당 총무이사 연석회의 결과를 9월 종보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으나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하여 11월 종보에 회의 전문을 재 게재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국종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11. 20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 의 락

◎ 전국 총무이사 연석회의 의제 ◎

1. 장학사업의 의의 (意義)

국가의 역사는 박물관에 있고 국가의 미래는 도서관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송심문의 청소년은 우리 심문의 미래이며 국가의 장래이기도 합니다. 초목(草木)과 같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 성쇠(盛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1971년 창립 당시에는 가건물의 5평 사무실에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하였으나 그 후 40년 동안 역대 회장단의 헌신(獻身)과 전국 종인의 협조로 지금은 반석(盤石)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종회 정관 제3조의 三大사업 중 첫째가 始祖, 二世, 三世, 四世祖와 그 배위 묘소의 수호와 제향의 봉행인데 묘소의 정화는 물론 도로와 주위 환경의 정비는 만전을 기하게 되었으며 둘째가 5처묘소 재산의 관리 인데 망실종재의 회복 등으로 착실하게 관리보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셋째 목표사업인 교육문화 사업 중의 장학사업 입니다. 장학사업은 그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으며,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2. 장학사업 결정과정

통상적으로 장학사업은 먼저 수십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도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에 영재(英才) 교육을 위한 장학회 설립을 발의 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장학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종회 三大 목적사업 중 교육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5월에 대종회 집행부의 상임이사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급여도 대종회 정관 제26조 4항의 정신에 따라 실비수당 정도로 책정하고 일반관리비도 최대한 긴축하여 연간 5,000만원 이상 흑자가 나도록 재무구조를 개편하고 2012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함은 물론 2012. 7. 17 회장단회의에서 청송심씨장학회 정관을 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3. 장학금 수혜 학년의 결정

꿈을 키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실의에 빠진 아이들에게 장학금은 크게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자(孔子)께서도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吾十有五而志于學)

4. 지역별 배정

전국 지역 간의 형평과 지역종회장의 위상 제고를 고려하여 장학생의 심사선발권을 지역 종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로 배분하였습니다.

5. 장학금 수여 절차

1) 신청서 제출

장학금을 수령코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매년 12월 1일~12월 30일까지 다음에 정한 소속 종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 도 권 : 서울, 인천, 경기 – **대종회**
- 비수도권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종회** / 대구, 경북 – **대구종회**
광주, 전남 – **광주금당산종회**
전주, 전북 – **전북익산종회** / 대전, 충남 – **대전종회**
청주, 충북 – **청주종회** / 강원 – **원주·횡성종회**

2) 접수 및 추천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각 종회장(추천기관)은 선발기준에 따라 엄선하여 별지서식의 추천서(추천된 자의 신청서 첨부)를 매년 1월 30일까지 대종회장에게 제출한다.

단. 배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자격미달 자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前 학년 2학기와 금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첨부)

3) 장학금 수혜자의 최종결정

대종회장은 전국에서 추천된 장학금 수령 희망자를 매년 2월에 개최되는 회장단 회의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

4)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장학기금 조성

전기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기금을 먼저 마련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에 영재(英才)교육을 위한 장학회 설립을 발의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학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 할 수 없는 터인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죄를 짓게되는 것입니다. 대종회의 수입예산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장학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의 필요 긴급성에 따라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 수년내에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인데 결국 우리 22만 종인께서 이 장학사업이 심문의 백년지대계 임과 필요 긴급함을 인식하고 참여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종회의 장학사업은 우리 심문의 중흥을 이룰 성업(聖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역종회와 각급 파종회의 임직원들은 먼저 적극 참여하시고 22만 전국 종인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선도(先導)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청하는 바입니다.

– 대종회 총무이사 –

宗事消息

◈ 대종회 주관(5처묘소) 외 추향제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秋享奉行

10월 23일(음 9월 9일)

始祖	配位
▷초헌 : 영섭(악은공종회 종손)	
▷아헌 : 재안	상오
▷종헌 : 상문	영구
▷대축 : 의량 ▷집례 : 완택	

2世祖 閤門祗侯公(휘:淵) 秋享奉行

10월 25일(음 9월 11일)

閤門祗侯公	配位
▷초헌 : 상영(익산종회장)	
▷아헌 : 재안	재정
▷종헌 : 재룡	종혁
▷대축 : 상홍 ▷집례 : 재근	

2世祖 奉翊大夫公 (휘:晟)秋享奉行

11월 8일(음 9월 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초헌 : 상하(철원종회장)	상렬(판관공종회장)	웅섭(공숙공종회장)
▷대축 : 상국 ▷집례 : 재근		

3世祖 靑華府院君(휘:龍) 秋享奉行

10월 27일(음 9월 13일)

靑華府院君	配位
▷초헌 : 민섭(도총제공종회장)	광택(안성종회장)
▷아헌 : 언호	웅섭
▷종헌 : 호섭	재룡
▷대축 : 상홍	상직
▷집례 : 광택	상홍

4世祖 靑城伯(휘:德符) 秋享奉行

10월 29일(음 9월 15일)

靑城伯	配位
▷초헌 : 상은(대종회 부회장)	정구(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 : 재안	상경
▷종헌 : 웅섭	정식
▷대축 : 상직	용규
▷집례 : 재근	재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秋享奉行

10월 31일(음 9월 17일)

▷초헌 : 재룡(청주종회장)
▷아헌 : 상중 ▷종헌 : 종규
▷대축 : 상홍 ▷집례 : 상호

5世祖 都摠制公 (휘:仁鳳) 秋享奉行

10월 31일(음 9월 17일)

▷초헌 : 의재(도총제공종회 이사)
▷아헌 : 재서 ▷종헌 : 언촌
▷대축 : 상홍 ▷집례 : 상호

5世祖 仁壽府尹公 (휘:澄) 秋享奉行

10월 31일(음 9월 17일)

▷초헌 : 정구(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 : 세구 ▷종헌 : 정식
▷대축 : 우경 ▷집례 : 상구 재철

5世祖 현령公(휘:天柱) 秋享奉行

11월 11일(음 9월말주)

현령公	配位
▷초헌 : 영수(현령공종회 종손)	
▷아헌 : 재서	채수
▷종헌 : 재길	경보
▷대축 : 대용 ▷집례 : 정용	

恭肅公(휘:澹) 養父 康主簿公 秋享奉行

11월 4일(음 9월 21일)

康主簿公	配位
▷초헌 : 상직(강주부공 봉향회 회장)	
▷아헌 : 강종진	심우정
▷종헌 : 이재화	심희진
▷대축 : 심재옥	

추향 헌성금 내역

(대종회주관 5처 묘소 추향성금)

⊙ 시조 제향성금

안효공종회	1,000,000원
도총제공종회	200,000원
춘천종회	100,000원
춘천 신천공종회(회장:상문)	200,000원
울산 내금위종회	200,000원

⊙ 二世祖 합문지후공 제향성금

도총제공종회	100,000원
안효공종회	300,000원

⊙ 三世祖 청화부원군 제향성금

안효공종회(회장:상덕)	300,000원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100,000원
(울산)내금위종회	200,000원

⊙ 四世祖 청성백 제향성금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100,000원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300,000원
안효공종회(회장:상덕)	300,000원
철원종회(회장:상하)	100,000원
신천공파 춘천종회(회장:상문)	100,000원
곡성종회(회장:정식)	200,000원
공숙공종중(회장:웅섭)	100,000원

⊙ 四世祖 청성백 배위(청주송씨) 제향성금

도총제공종회	200,000원
안효공종회	300,000원
첨지공종회	200,000원

⊙ 강주부공 제향성금

공숙공종중(회장:웅섭)	5,000,000원
안효공종회(회장:상덕)	300,000원
상직(봉향회장)	100,000원
신천강씨 괴곡문중	100,000원
신천강씨 선산파 종친	100,000원
덕수이씨종회	100,000원

★ 제향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미덕

심 재 옥
종보편집위원
대종회 이사

청송심씨 종보 제96호(2012. 7. 30)를 통하여 장학버스가 출발하였음을 처음 알았다. 또한 뿌리교육계획과 캐나다종회가 결성된 사실 및 심문의 가장이 바뀐 내용 외에도 각종 다수의 소식을 함께 알게 되었다. 종보는 우리 심문의 전국 각 지역과 지파종회 소식을 알려 주는 창구로서 조상의 유덕을 추모 선양하고 후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일가간의 화합 계기를 조성하는 등 그 기능은 실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현재 종보는 매회 6,500부가 격월 간격으로 연 6회 발행되고 있으며, 연간 총 3,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대종회에서는 무료구독을 원칙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비용을 부담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니와 수익자 입장에서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물론 종보 구독료를 내자고 하기는 쉽지 않으나 부족한 발간 비용에 보태도록 내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은 미덕이고 종사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의 결산보고를 인용치 않더라도 종보발행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안효공종회에서도 일천만원의 헌성으로 참여한 바가 있으며 금년 또한 경우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즉 종보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이 중단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전제하에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현재의 종보 구독 세대에서 1년에 한번 10,000원씩만 기탁한다면 연간 6,5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는 2년치의 종보를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제작 · 운영비를 충족하고도 또한 그 만큼의 자금이 여유로워짐으로서 장학금 등 기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계기가 조성되게 된다.

즉 1년치의 신문값으로 생각을 해도 좋겠고 종사에 참여하는 1년에 한번의 커피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듯 싶으나, 이때에 전달되는 일만원의 기탁금은 종사에 직접 참여하며 종보를 만드는 자금의 기본으로서 종보의 주인이 되는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만원으로 참여하는 나의 작은 정성이 종보 발행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심문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껴본다.

차제에, 종보 발행 부수를 1만부 2만부 등으로 점차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일가분들께 종사소식을 폭넓게 전해드리고 또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십시일반의 미덕!

지금 대종회의 찬조금 입금구좌를 확인하고 농협에 나가야겠다.

종보찬조(과거 10년간) 종회별 현황
(2002년~2012년 11월 현재)

『靑松沈氏宗報』 발행 성금내역을 감사의 뜻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종회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하기 내용 중 이상이 있는 종회는 대종회 재무담당에게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5일
〈대종회 재무/문화이사〉

▶파종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봉익공파	봉익공종회	2	晟	●
악은공파	악은공종회	4	元符	●
	현령공종회	5	天柱	●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	5	仁鳳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	5	義龜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	5	繼年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	5	澄	
인수부윤공파	곡성종회	9	淳	
	정랑공종회	9	澧	
	내금위종회	11	滉	
	절도사공종회	12	元剛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儁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楠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櫚	
	통천공종회	16	廷로	
	동지돈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魯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	5	溫	●
안효공파	공숙공종회	6	澮	●
	정이공(어비리)종회	6	決	●
	이경공종회	7	瀚	●
	판관공종회	7	湲	●
	사인공종회	8	順門	
	수찬공종회	9	達源	
	효창공종회	9	逢源	●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嶷	●
	수사공종회	10	巖	●
	임천공종회	10	鎭	
	첨정공종회	10	鎡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안효공파	곡산공종회	10	鐩	●
	양지공파 임피종회	10	業	●
	청양군종회	11	義謙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풍덕공파종회	11	筍	
	청계부원군	11	友勝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선무공신종회	11	友信	●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성천부사공종회	11	禮謙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신천공종회	11	孝謙	●
	신천공파춘천종회	11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정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양지공좌승지공종회	12	淑	
	수찬공파고척종회	12	譚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정언공파진천월촌종회	12	仁禧	●
	수운판관공파첨정공종회	12	慣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랑파	13	廷熙	
	정강공마산종회	13	廷江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광주부윤공선산종회	14	樅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欑	●
	증참판공종회	15	漢弼	
	광주금당산송암종회	15	瑛容	●
	광주금당산벽암종회	15	璐容	
	광주금당산두암종회	15	瑛容	●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헌공종회	17	宅賢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안효공파	제철공종중	17	濟喆	
	만중공종회	18	萬重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생원공파법곳종중	19	燁之	●
	정랑공마산종회	19	宣之	

▶지역종회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서울	남서울종회	●		청주종회	●
	서서울종회	●		청주 청송회	●
	동서울종회		충남	공주종회	
	영등포종친회	●		당진종회	
	청송 골프회	●		부여종회	
부산	부산종회	●	전북	전북종회	●
	부산청송회	●		전북청송회	
대구	대구종회	●		익산종회	●
	대구 청·장년회	●		정·고·부 화수회	●
인천	인천종회	●	전남	임·순·남종회	
	청인회	●		순천종회	
광주	광주청광회	●	경북	함평종회	●
대전	대전·충남지구종회	●		구미종회	●
	대전 화수회	●		성주종회	●
울산	울산청년회			안동종친회	●
	울산청송회	●		안동오평종친회	
강원	삼척종회		경남	김천지역종회	
	원주 · 횡성종회	●		고성군종친회	●
	금화종회			마산종회	
	춘천종회	●		진주종회	●
경기	김포종회	●		통영종회	●
	부천종회			함안종회	
	성남종회			합천종회	●
	안성종회	●	해외	미주종회	
	장호원종회			일본종회	●
	용인종회			캐나다종회	●
충북	제천·단양종회		인터넷	인터넷종친회	
	증평종회				

모범종회 소개

대전 화수회(花樹會)

심 의 철
대전 화수회 회장
대종회 이사

전국 종인들께 귀감이 되는 대전 청송친목회(花樹會)는 1976년에 심문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로 현재 의철(宜哲) 회장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종인들께서는 숭조돈목사업에 적극 협조 하실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는 유서깊은 모임이기에 전국 종인들께 널리 소개하는 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숭조돈목 사업으로

1. 1976년부터 연 2, 3회 5처묘소 춘·추 시향에 버스나 봉고차를 대절하여 종인들이 참석토록하고 있고
2. 대전·충남지구종회 발전기금으로 매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3. **특히 금년에는 종인들의 뜻을 모아 100만원을 대종회 장학기금으로 찬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1. 연 4회(분기별) 뿌리공원 靑松沈氏 조형물 및 주변청소(종회 현근회장 중심으로 활동)
2. 보문산 등산로 청소
   (의철(宜哲) 회장님을 중심으로 주2회 야외음악당 주변과 청년광장 등 산로 쓰레기 줍기)
3. 대전시 동구 대별동 3거리 교통통행지도(초등학생 등교 지도를 재영일가 중심으로 월~금요일 아침 8시~9시까지)

* 대종회에서는 장학회 기금으로 거액 1백만 원을 찬조해 주신 대전 화수회(花樹會 : 회장 의철)의 깊은 뜻을 받들어 성공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종회 문화이사–

▲ 대전 화수회 회의 장면

종·인·소·개

심 어 택(沈魚澤)
대종회 고문

지난 10월18일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 한 식당으로 청·장년을 능가하시는 노익장(老益壯) 어택(魚澤) 고문(顧問)님을 모셨다. 이곳은 용산공원 근처로 고문님의 자택이 있는 조용한 마을이다. 올해 98세로 2개월 후엔 백수(白壽)가 되시는 우리 심문의 큰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라 긴장이 되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고문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찾아뵙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 할 수가 있었다.

오랜 기간 철도청에 간부로 근무하셨고 안효공 종회장을 역임하신 심문의 큰 어르신께 우리가 종사(宗事)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백수(白壽)를 바라보면서도 노익장(老益壯)을 발휘하시는 건강비결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다.

종사를 추진했던 사례 중에서 20년 전 안효공 종회장으로 계실 때 안효공 묘소 참배로(參拜路)인 양쪽 돌계단을 만든 공사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 당시에는 안효공 종회에 재력이 없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종인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단다.

우선 고문님께서 공사자금으로 50만원을 쾌척(快擲)한 후 손발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셨다고 한다. 위선사업(爲先事業)을 위하여 사심 없이 솔선수범하시며 추진하시는 고문님의 열정에 뜻있는 종인들이 앞다퉈 동참하여 8백 여 만원(그 당시 8백만 원은 큰 돈 이었음)의 거금을 순조롭게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하신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人夫)들을 한편으로는 감싸 안으면서도 때로는 호되게 질책하시고 직접 진두지휘하셨던 일을 회상하시는 감회어린 표정에서 조상을 섬기는 경외심(敬畏心)을 엿볼 수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참배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각고(刻苦)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성취이기에 애착 또한 크시리라 생각이 된다. 종사(宗事)에는 오로지 조상님을 받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며 사심(私心)을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 해서도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신다. 공(功)은 종중(宗中)과 종인(宗人)에게 돌리고 과(過)는 책임지는 자세로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종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소중한 말씀도 해주셨다.

고문님께서 백수(白壽)까지 무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여 채근하듯 여쭈어 보았다. 고문님께서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소탈한 식사를 즐기며 과식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바쁜 직장생활에서도 등산을 즐기셨으며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셨단다. 어느 해 초겨울 등산동호회 회원을 이끌고 도봉산을 다녀오면서 갑자기 발생한 기상악화로 자운봉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등반대장으로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했다. 회원들이 우왕좌왕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남·여 남·여로 조를 짜서 안전하게 하산한 일화(그 날 다른 등산동호회에서는 5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음)를 통해서도 지도자의 탁월한 자질을 엿볼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두주불사(斗酒不辭)의 애주가 이셨으나 의사로부터 금주권고를 받으신 날 즉시 술을 끊고 8년간이나 금주를 실천하셨다고 한다. 필요하면 결단하는 몸에 밴 생활 습관이 건강의 토대가 되었을 터인데 몸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 못지않게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몸을 항상 움직여야한다는 고문님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몸은 타고나는 것보다 자기가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배재학당 중학교 재학시절 일본선생이 강요하는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은 일, 한국인선생님에게서 독립정신, 애국심, 우리 역사를 익히며 자주독립을 꿈꿨던 일, 고등학교 때 미국인 교장선생님의 자율정책으로 학내에서 금지되었던 외출금지 해제로 덕수궁 뒤 호떡집에 드나드셨던 일, 대화는 시간 가는 줄도 잊은 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일본 후지산 등산을 하면서 느꼈던 일본인의 조직력과 단결심, 질서의식 등은 우리도 받아들여 국력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며 독감예방주사를 꼭 맞으라는 자상함도 보여주셨다. 대담 내용을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학사업의 첫발을 내딛기 위하여 대종회 의락(宜洛) 회장님께서 어려운 구조조정의 아픔을 딛고 매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결단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재차 해주셨다.

「종사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우리문중의 큰 어르신이신 고문님의 건강한 모습은 우리문중의 홍복이다. 단아한 옷맵시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찾아 볼 수 없는 곧은 자세, 장유유서(長幼有序)와 항렬(行列)을 따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2시간 내내 하대(下待)하시지 않는 언행에서 학(鶴)의 자태(姿態)와 고매(高邁)하고 온화(溫和)한 인품(人品)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 문중의 보배이신 고문님께서 더욱더 강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계시며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종사에 지혜를 보태주시고 매년 대종회 정기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을 위하여!
청송심씨 대종회발전을 위하여!
청송심씨 종인의 건강을 위하여!

만세삼창을 선창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돌아왔다.

◈ 대담
– 심재서: 종보편집인(대종회 문화이사)
– 심웅섭: 종보편집위원(대종회 이사, 공숙공종중 회장)

대종회 홈페이지 '동영상' 감상기

심 재 석
문학박사
대종회이사
종보편집위원

대종회 홈페이지에는 KBS에서 절찬리에 방영됐던 사극 '용의 눈물' 중 심온 할아버님 관련 부분이 편집되어 올려져 있다. 심온 할아버님은 따님이 세종대왕의 비가 되면서 영의정에 오른다.

그 뒤 명나라에 사신으로 떠난 후 곧바로 태종은 군사 이동을 문제 삼는다. 이로 인해 할아버님은 귀국길에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당하고, 수원으로 이송되어 사약을 받으시고 절명하는 내용과 심씨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할아버님이 사은사로 가기 위해 한성을 떠난 후 그 아우인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과 함께 상왕 태종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던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무술옥사가 시작되었다.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즉위한 태종은 왕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즉위에 큰 공을 세운 민무구 등 처남 4명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으며, 공신들도 가차없이 제거하여 왕권을 안정시켰었다. 그런 그가 상왕이 되어 이제 세종의 왕비족인 청송 심문에 일격을 가하여 훗날 있을 왕비족의 득세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것이다. 아마도 세종비가 심씨가 아닌 어느 씨족이었다 해도 그 같은 화를 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동영상에서, 심온 할아버님은 수원에서 태종이 보낸 사약을 받고 '상왕도 자식을 위해서라지만, 나도 자식(소헌왕후)을 위해서 죽겠다며 중전을 폐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 하시면서 운명하신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영의정에서 졸지에 역적으로 몰리고, 자칫 왕비이신 따님까지 쫓겨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왕후의 자리만은 지켜주겠다는 태종의 약속을 받고 할아버님은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신 것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 후손들은 눈시울을 붉힐 것이다.

할아버님의 참화 후, 소헌왕후는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억누르고 왕비의 지위와 품위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리고 왕비로서는 드물게 8남 2녀를 낳으시고, 사려 깊은 내조를 통하여 세종이라는 희대의 성군(聖君)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조선왕실에도 심문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요, 우리 심문이 삼한의 갑족이 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

무고로 판명된 심온 할아버님은 사후에 관작이 회복되었고, 심문 13명의 정승 중 할아버님 후손에서 10명이 배출되었다. 우리 심문이 해동의 명문가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안효공 할아버님과 소헌왕후의 음덕이 아니겠는가!

여러 종인들께서는 대종회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주위의 일가친지나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대종회 의락 회장님께 격려편지

심 승 규
〈공숙공파〉

종보 구독 종인께서 아래와 같이 의락 회장님의 장학사업에 대한 격려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대종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문 자녀들의 영재교육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버스가 달려가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에 심문 가정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훌륭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목표를 달성하여 장학사업을 계속 이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88-6
심 승 규 올림

삶의 유머

남편의 소원

남편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노부부가 축하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파티 도중 어디에선가 요정이 부부 앞에 나타나 말했다.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릴까 해요.
우선, 부인의 소원이 뭐죠?"
부인이 반색하며 즉시 대답했다.
"아하~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과 사이좋게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며 부인의 손에 세계여행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요정이 다시 물었다.
"이제 남편분의 소원은 뭐죠?"
그러자 갑자기 기대에 부푼 남편 왈~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어이없어진 부인.
그 부인을 힐끗 쳐다본 요정은 그래도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다.
'펑' 소리와 함께 남편은
…
…
… 90살이 되었다.

– 대종회 관리부장 –

청송명품
「장국현의 금강송 사진전」 관람

「청송명품수목 · 풍광 사진전」이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렸다. 우리 청송심문의 관향(貫鄕) 청송군 지역을 대표하는 군목(郡木)인 소나무를 알리기 위한 사진전이다.

이는 곧 청송심씨 시조 산소가 있는 보광산(普光山)과 주왕산 일대에 터를 잡고 하늘 높이 치솟은 청송(靑松-푸른 소나무) 사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조선매거진 월간 山" 이 주관한 소나무 사진전은 10여 년 간 소나무를 외곬으로 찍어 온 소나무 대표 사진작가로 불리는 古松 장국현(70세) 선생의 작품 '금강송' 등 수목 22점과 '솔숲'을 비롯한 자연 풍광을 다룬 사진 병풍 등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우리 청송심문의 중대산소《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동 소재》주변에 우뚝 선 일만 가지나 된다는 약 300여 년 된 만지송(萬枝松)을 전시장에서 바라보니 더욱 감회가 깊었다.

옛 선비들이 『백목지장(百木之長)이요 만수지왕(萬樹之王)』이라 하여 나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친 군자목(君子木)인 청송(靑松)을 예찬(禮讚)한 것은 결코 우연(偶然)이 아니라는 것을 전시된 사진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 심문을 상징하는 가장(家章)이 청송(靑松)인 것은 청송심문의 발원지인 보광산과 주왕산 소나무의 기상(氣像)을 통해 산고수장(山高水長), 충절(忠節), 기개(氣槪)를 대대로 익히고 실천해온 가문의 가치가 곧 우리 심문의 긍지(矜持)이기 때문이다.

– 문화이사 –

▲ 靑 松

▲ 청송 중대산 만지송

▲ 대종회 집행부와 관람이사 기념촬영
(앞줄 좌로부터 상렬, 재서, 뒷줄 재근, 삼규, 봉섭)

종회탐방 시리즈 - (6)

대구종회(大邱宗會)

지역종회 중 대구종회는 역사가 깊은 종회로 청 · 장년회와 함께 종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대종회에 많은 협조와 종사업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대구종회(회장 홍섭)를 탐방하였다.

대종회 문화이사 / 종보편집인

종회탐방기(6) – 대구종회(大邱宗會)

심 홍 섭
대구종회장
대종회 이사
신천새마을금고 이사장

• 일시 : 일시: 2012년 10월 12일 12시
• 장소 : 신라 숯불 가든

– 진행 : 성택(成澤) 종보편집위원(대종회이사)

1. 大邱宗會 構成

1) 연 혁

대구종회는 선조의 덕업을 숭상 선양하여 문중의 위상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종친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도에 창립하였다. 지금은 작고하신 형섭, 재건, 재탁, 재동, 재윤 등 원로종친들의 발의로 종회를 결성하였으며, 당시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하신 성택(聖澤) 검사장(대종회 현 상화부회장 부친)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발족한 이후 4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다.

2) 종원과 조직

가) 종원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종인이면 누구나 종회 회원 자격이 있다. 1980년대에는 숭조사상과 동족애가 높아 정기 총회 시에는 500~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도가 저하되어 현재는 정기총회 참여 회원수가 200명 정도이고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종인 수는 약 20,000명 정도로 추정 하고 있다.

나) 조직

▷ 회장 : 炅燮
〈역대회장 : 聖澤 / 載完 / 載昱 / 相喆〉
▷ 장학회장 : 載協
▷ 부회장 : 淸澤, 宇正, 武錫, 貞燮, 勳(載), 勳(輔), 護雄, 載鈞, 景鍾, 奎燮, 相根, 三福
▷ 총무 : 相翰, 相培
▷ 재무 : 興植
▷ 감사 : 相勳
▷ 이사 : 寅燮 외17명

3)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중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시 개최 한다. 이사회는 연간 3~4회를 개최한다.

2. 종회행사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정기 총회에서 전년도 사업 결산 및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보고를 하고 의결 한다. 이 자리에서 종친자녀의 장학금 전달, 선조의 업적 교육 및 홍보,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의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화합을 도모 한다.

3. 종회의 자랑

1) 장학회 운영

종원들의 찬조로 장학기금 2,0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1992년부터 종원 자녀, 중 · 고등학생에게 매년 4~5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 해왔으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2명을 선정하여 1인당 30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2) 청 · 장년회 운영

1992년에 청년회를 결성하여 운영해왔다. 회원 수는 30명이며 회의는 월1회 개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종회 임원을 초청 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종회 정기총회 시 안내 등 행사지원, 연1회 청년회 친목야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3) 본관 찾아주기 노력

일제시대에 호적을 정리 하면서 본관이 잘못 기록되어 사용 해오던 종친 7세대(영주심씨, 칠곡심씨)에 대하여, 1975년경에 대구종회가 앞장서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관을 청송으로 바로 잡아 주었다.

4. 대구종회 종인들에게 바람

1) 홍섭 회장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조상 숭배 사상과 동족애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에 대구종회가 이정도로라도 유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젊은 세대에 많은 참석을 유도하여 대구종회가 더욱 활성화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5. 대종회 건의 사항

1) 대종회의 장학사업 운영방법 개선

가) 대구 · 경북을 묶어서 심사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나) 지급 대상을 중 · 고교생으로 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장학금 전달은 지역종회에서 전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대종회서 전달 할 시에는 상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조상에 대한 업적을 홍보하는 방법 혁신강구

〈건의 배경〉

우리 청송심씨는 정승, 판서와 왕비를 많이 배출한 조선조 최고의 명문벌족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종회가 홍보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가) 훌륭한 조상들의 傳記 발간
① 한양도성 조성의 주역 '虛江(靑城伯) 沈德符 傳' 또는 '小說 虛江 沈德符'를 발간
② 일송 심희수와 일타홍과 사랑이야기, 영의정 심연원전, 화가 심사정전 등 스토리가 있는 조상을 선정 연차적으로 발간계획 수립 시행하고, 근대사적 인물 중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 전기 발간

나) 서울 시내에 '허강로(虛江路)'라 명하는 도로명을 제정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충무로, 율곡로, 퇴계로, 원효로, 소월길, 다산로, 토정길 등이 있지만 진정으로 서울 도성을 조성한 심덕부의 호를 딴 '허강로'는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허강 심덕부'의 업적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도로명 제정위원회' 주관부서 책임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여 관철 되도록 협의

다) '우리의 年表' 만들어 보급
조선시대 및 근세사에 우리의 선조 및 유명 종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등에 참여한 기록을 시대별로 요약한 연표를 만들어 보급(현재 시중에는 梁氏들이 만든 연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대종회는 광역시 정도의 규모가 큰 지역종회의 정기총회 등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6. 기타 사항

1. '본향 청송(本鄕 靑松)'에 대한 역사성을 제고하고 본향을 유서 깊게 다듬는 노력과 함께 심문과 관련된 관광상품개발(청송군청 주관에 협조)로 심문의 위상을 높이는데 대종회는 더욱 힘써달라.
청송에 공원 명칭을 **"소헌 공원"**으로 제정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2. 의락 회장님의 장학사업은 대단한 결단이며, 대종회의 큰 업적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3. 대종회의 변화되는 모습에 지역종회나 지파종회에서는 대종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종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4. 지방순회뿌리교육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탐방취재에 바쁘신 중에도 임원진 30여 명과 청장년회에서 많이 참석하여 종사발전에 많은 의견교환을 상호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섭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진행을 담당해 주신 성택 종보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문화이사 –

■ 종회탐방 예정

• 종보99호(2013년 1월 발행) – (안동시) 현령공종회(회장:聖輔)
• 종보100호(2013년 3월 발행) – (파주시) 공숙공종중(회장:雄燮)
• 종보101호(2013년 5월 발행) – (안성시) 정이공종회(회장:錫鎔)
• 종보102호(2013년 7월 발행) – (의왕시) 府使公종회(회장:榮燮)
• 종보103호(2013년 9월 발행) – (익산시) 전북益山지역종회(회장:相泳)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회는 대종회 문화담당에게 신청바랍니다.

▲ 전임 상철(相喆) 회장께서 종회 발전과 종인의 건강을 위한 건배 장면

▲ 성택 편집위원께서 진행 장면

공숙공종중 재실 준공식 거행

▲ 공숙공종중 웅섭회장 식사(式辭) 장면

▲ 재실준공 테이프 컷팅 장면

공숙공종중 재실(德善齋)준공식이 2012년 10월 13일 경기도 파주 영태리 묘전에서 전국 150여 명의 일가들이 모여 고유제를 올린 후 재실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웅섭 공숙공종중 회장께서는 식사(式辭)에서 덕선재 준공식을 위하여 원근 거리에서 참석하신 후손들을 보시는 공숙공께서 기뻐하실 것과 바쁘신 중에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이제는 종회의 모임이 숭조·상문(崇祖·尙門)을 넘어선 종친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가 간의 친목을 강조하였고, 준공식을 마친 후 뷔페로 푸짐한 식사를 하였다.

또한 11월 6일 참의공(7세조) 추향 시에는 참례한 80여 명의 일가분 모두에게 봉송(封送)으로 준비한 쌀 2가마분의 떡을 일일이 나눠드리는 웅섭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일가분들의 많은 칭송이 있었다.

– 대종회 문화부 –

양계사 추향제 봉행

▲ 양계사 추향제 제향 장면

지난 3일 봉행된 양계사 추향제는 定安公 虛江 沈先生(휘:덕부)과 遁齋 沈先生(휘:계년)과 愛菴 沈先生(휘:연)의 위패를 모시고 옛 성현들의 뜻을 되새겼다.

이날 제관으로는 지역유림 50여 명과 본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되었다.

초 헌 관	김재우(어랑사 별유사)
아 헌 관	반강진(前 군의원)
종 헌 관	번원현(봉암서원 별유사, 前 군의원)
집 례	김명원(상산김씨 대표)
축 관	공영갑(現 장성문화원 향토사 연구원)

■ 50만원 이상 종보·장학금 찬조 종인 사진게재(1년간)

심 광 섭
일본종회장
종보찬조 1백만원 11월

심 주 섭
대종회 상화 부회장 長子
종보찬조 50만원 11월

심 원 섭
대종회 상화 부회장 次男
종보찬조 50만원 11월

심 성 보
대종회 재서 문화이사 長子
종보찬조 50만원 11월

심 언 촌
대종회 이사
종보찬조 60만원 11월

노 병 선
대종회 상화부회장 妹夫
장학금찬조 50만원 9월

심 윤 경
대종회 상화부회장 妹
종보찬조 50만원 9월

심 의 용
악은공종회 악은회 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9월

심 의 칠
악은공종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9월

심 우 영
대종회 지도위원
장학금찬조 1백만원 9월

심 장 식
합흥공종회장
장학금찬조 1천만원 8월

심 두 섭
신천공파 현공분파종회장
종보찬조 1백만원 7월

심 재 서
대종회 문화이사
종보찬조 50만원 6월

심 상 욱
캐나다 종회장
종보찬조 50만원 5월

심 재 양
임피종회장
장학금찬조 5백만원 4월

심 완 보
법곳종중회장
종보찬조 50만원 1월

심 웅 섭
공숙공종회장
종보찬조 50만원 1월

심 상 영
전북·익산종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1월

심 재 덕
안동종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1월

심 상 균
부산종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1월

심 의 두
대종회 지도위원
장학금찬조 1백만원 1월

안효공종회의 정성어린 종보찬조

심 상 덕
안효공종회 회장
대종회 부회장

안효공종회(회장:상덕)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종보찬조금으로 거액 1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안효공종회의 깊은 뜻을 받들어 『수준높은 종보, 기다려지는 종보』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대종회 문화이사 –

任 員 會 費

500,000원	두섭(대종회 명예회장)
300,000원	찬구(대종회 부회장)
200,000원	재면(대종회 감사) 춘식(대종회 감사)
50,000원	철식(전북) 상묵(서울) 재석(인천) 원식(서울) 만인(부산 11.12년도) 춘보(서울) 재근(서울) 재덕(부산 11.12년도) 형무(인천)

奬 學 金 贊 助

1,000,000	대전화수회(회장:의철)
300,000	성보 (현령공종회장 개인) 민섭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100,000	백규(서울.성북구)
50,000	정섭(강원.춘천)

宗 報 贊 助

10,000,000	**안효공종회(회장:상덕)**
1,000,000	광섭(일본종회장)
500,000	주섭 새하늘 이비인후과 원장 (대종회 상화부회장 長子) 원섭 IBK증권 연구위원 (대종회 상화부회장 차남) 성보 DBS은행 서울지점 이사 (대종회 문화이사 長子)
200,000	현령공종회(회장:성보) 원주·횡성종회(회장:정보) 재근(대종회 이사)
100,000	감찰공종회(충주) 만취당파 태안종회(회장:운택) 춘보(서울. 대종회이사) 재옥(경기. 대종회이사.편집위원) 언촌(경기. 대종회이사) 호웅(대구. 대종회이사) 청송회(울산), 상철(청송), 재복, 재열(전북), 재정, 만인(부산) 경보(영양)
50,000	희보, 윤보(부산), 백규(서울. 성북) 기오, 준섭(광주. 대종회이사) 대보(대구), 완도보길우체국(미상) 정섭(강원. 춘천), 상백, 상훈, 덕섭 무석(대구), 재호(대구), 동원, 헌섭 재익, 영섭(청송), 흥섭(부산) 상각(정읍. 돈제공 후손)
30,000	인보(대종회이사)

예산 對 실적 (2012년 11월 27일 현재)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률
종보찬조	32,000,000원	28,250,000원	88%
임원회비	18,200,000원	14,750,000원	81%
장학기금	2,000,000,000원	28,150,000원	0.1%

관향(貫鄕) 소식

▼ 자료제공

沈 南 圭
편집위원
대종회 이사

- 재일교포 도예가 심수관 선생 지난 11. 19일 시조 묘소 참배
- 소헌공원에서 「청송군서화예술전」이 지난 10월 15일~17일까지 3일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서린 청송읍 소재 소헌공원에서 「제18회 청송군서화예술전」이 열렸다.
- 청송 명품사과 소개

♣ 청송 명품사과 소개 ♣

우리 관향 청송의 명품사과 소개 - 껍질째 먹는 사과

▲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 원섭(청송유사)

저농약농산물

▶ 인증번호 : 제16-13-4-09호
▶ 생 산 자 : 청송IPM사업단
▶ 인증구분 : 저농약재배 (사과)

저희 IPM사업단에서는 친환경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사과만 판매 합니다.

농장주 : 심 원 섭(청송 유사)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길 27 (덕천리 193)
Tel : 054)874-6648
H · P : 011-9008-6648
E-mail : smingyu@korea.kr
계좌번호 : 농협 711078-52-003984

♣ 전국 택배 가능 ♣

공 지 사 항

▶새로 제작한 컬러배지는 20개 단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개당 5,000원)
▶인터넷족보 등재 접수는 11~12월(2개월)만 접수합니다.
▶이사회비(2011~2012) 미납 임원은 40여명으로 금년 12월 30일 내로 입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2회분 미납시 임원포기로 간주하여 2013년 1월 1일자로 임원명단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대폭 인하(10만원)하여 보급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人事 올립니다.

지난 10월 31일(陰9월17일)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쁘신 중에도 枉臨 하시어 후의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慌忙중이라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여 우선 지면으로 감사말씀 올리오며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2년 11월 15일

孤哀子 沈 相 和 拜上

종보편집위원 위촉

심 동 섭
〈현령공파〉
대종회 이사
유교신문 경남주재 기자

종보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1월 1일자로 경남지역 대표 종보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존경 받는 종친으로 「청송심씨종보」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창출과 도약을 위해 기여해 주실 것입니다.

祝 표 창

심창용 대동기업(합) 대표이사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일가들의 단합모임

캐나다종회는 금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동포사회에 여러 행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일가들 모임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저녁 저희 집에서 상수 총무님이 정성껏 장만한 음식과 귀한 한국 술로 저녁을 즐겁게 보내며 일가간에 친목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대종회에서 보내주신 대동세보를 보는 방법을 공부하며, 각자 가정의 족보를 따져보기도 했고, 우리 이민 1세대 이후 이민 2세들이 한문을 모르니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이어가느냐의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송년회를 겸하여 연말에 가질 예정입니다.

– 캐나다종회 상욱 회장 –

▲ 일가모임 후 기념사진

바로잡습니다

▷종보97호 2세조 합문지후공 遺詩【해설문】
(安分吟) ⇒ (安分吟)
成離 ⇒ 成籬

訃 告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심종섭(대종회 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심종섭 前 전북대 총장(사진)이 11월 4일 노환으로 별세하셨다. 향년 95세. 고인은 1917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일본 규슈대 농학과와 미국 예일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농림부 산림국장으로 발탁돼 농림행정에 기여했고 서울대 교수, 한국임학회 회장,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서울대 농대학장, 전북대 총장 등을 지냈다. 황조소성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저서로 '임산가공' '목재방부학' '치산녹화 30년사' 등이 있다.

심성택(대종회 고문)
대종회 고문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성택 고문께서 2012년 11월 21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다.
전북도청 상공국장, 남원시장, 동진농지개량조합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다.
長子 : 심 상 목(010-6216-3397)

청송심씨 봉사손 世系圖

시조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洪孚 淵 龍 德符 仁鳳 灝 淑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瓘 自淸 承善 ① 洙 → (无后) 瑾
② 泗 → (无后)
❸ 溱 → 장남(瑾)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潤身 師顔 宗良 鑌 慶一 相協

19세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泰煥 能宗 宜老 元澤 相和

24세 → 25세
① 興燮 → (无后) 載鉉(奉祀孫)
❷ 敏燮 → ❶ 載鉉(出系伯父)
③ 泰燮 ② 載興
④ 弘燮

송 금 안 내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 청송심씨대종회
농협 : 301-0107-5873-71